

포 기업간 경쟁심화로 경영기법과 노하우, 핵심기술이 진보할 수 있는 데까지 진보하다보니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,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비용을 절감

할 수 있는 분야는 물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. 추 사장은 "우리 물류기업들은 거대기업들이 손대기 곤란한 특수 분야의 틈새시장을 겨냥한 서비

스를 무기로 세계시장을 파고들어야한다"면서 "이런 차원에서 슈퍼터 익스프레스가 새로운 물류의 세계를 열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"고 말했다. **ET**

## Interview

## 추동화 (주)슈퍼터익스프레스 대표이사

# 글로벌마인드를 가져라!

추동화 사장이 구상하는 슈퍼터익스프레스의 새로운 모습은 글로벌화와 인재육성이었다. 인터뷰를 통해 '다지고 싶은 회사'로, '세계적인 특수물류기업'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'물류인재 양성을 위한 물류 연구소'를 만드는 데 여생을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.

**Q** 늦었지만 대표이사 취임에 축하하며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.

**A** 특송임업 30년 동안 DHL에서 근무하면서 다방면의 특송을 배웠습니다. 특히 DHL단자스(현 DHL글로벌포워딩)에서 해운, 항공, 물류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. 이제 지난 세월 배웠던 것을 본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, 또 50여명의 직원 및 가족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.

**Q**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.

**A** 보석류, 혈액 샘플, 역사유물, 전시작품, 생물연구용 세포 등 특이한 제품들을 국제간 운송 하는 특수물류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. 전체 물류시장의 20~30%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.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손을 대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.

**Q** 토종 국제특송업계에 한일삼 당부하신다면?

**A** 다국적 특송기업은 사람, 시스템, 네트워크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. 전문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(Standard)를 가진 인력에 1년에도 1억달러 이상의 IT투자, 수백에게 이르는 지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. 특히 지사 네트워크는 단순히 몇 사람보내 사무실을 여는 수준이 아니라 통관, 배송, 시스템, 물류 등 일련 서비스를 갖춘 지사를 의미합니다. 그러나 국내에 아무런 큰 대형기업들이라도 다국적 기업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? 어렵지는 시도입니다. 다만 토종 특송기업들은 글로벌한 경영마인드를 갖추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의 길목에서 특

유의 부지런함으로 승부해야 할 것입니다.

**Q** 이외에 또 필요한 것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.

**A** 기업가 정신입니다. 사회적 책임과 공헌을 할 줄 알아야 진정한 기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또 후배에게 미래모형을 제시하고 키우는 사업가가 되어야 합니다. 그래야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후배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.

**Q** 회사를 윈전 리모델링 했는데 그 이유는?

**A** 아시아시피 방화동에 사옥을 매입해 완전히 새로 꾸민 것 기존 공항 사무실도 리모델링했습니다. 이는 직원들의 자부심을 위한 것입니다. 깨끗한 공간에서 참신한 마인드, 청성스러운 서비스가 나옵니다. 그리고 좋은 인재가 모이게 됩니다. 내용도 중요하지만 모양새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.

**Q** 개인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.

**A** 30년 동안 글로벌 기업에서 특송인으로 살았습니다.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모델을 후배들에게 제시해 주고 싶습니다. 특히 '물류연구원'을 만들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진 물류인들을 키워내고 싶습니다. 이것이 남은 삶의 목표입니다.

**Q** 한국물류시장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.

**A** 한국인 이미 국제 시장의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. 과거의 폐쇄적 시장이 더 이상 아니라는 뜻입니다. 그렇기에 앞으로 국제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.

**Q** 본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?

**A** 글로벌 스탠다드가 무엇인지, 업계가 나아가 방향이 무엇인지 등을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들을 통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. 즉, 단순 정보 전달지보다 계도지가 되길 바랍니다.